

<젊은이들에게 배우는 청렴!>

대학 3학년인 아들이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해 보고 싶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정직하고 소신이 있는 아이 이기는 하지만, 당선되기가 쉬운 것도 아닐 테고, 혹시라도 선거 후 득표율이 저조해서 자신에게 실망하고 자신감을 잃으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걱정스럽기도 했지만, 지금이 아니면 도전해볼 수 없는 일이니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뜻이 있으면 한 번 도전해보라고 했다.

11월 첫 주부터 본격적인 선거유세전에 들어갔고,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갈 때쯤, 아들이 유세하는 모습을 한 번 보고 싶은 마음에 학교 앞으로 향했다.

해도 뜨기 전 어둑한 교문 앞에는, 후보자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조금 있으니, 같은 색깔 점퍼를 입은 팀끼리 일렬로 늘어서서 공약들이 적혀 있는 피켓을 들고서는 등교하는 학우들에게 자기들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소중한 표를 찍어 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하였고, 그 모습에는 국회의원 선거유세 못지않은 팽팽한 긴장감마저 감돌았다.

네 명의 후보 중, 기호 2번인 아들도 2번이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빛바랜 낡은 주홍색 점퍼를 입은 일행들과 함께 서있는 모습이 보였다.

학우 한 명, 차 한 대가 지나갈 때마다 허리 숙여 인사를 하고, 자신이 내건 공약을 꼭 지키겠노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모습이 의젓해 보였다.

아들이 내건 공약은, ‘등록금 동결, 장학제도 늘리기, 학생식당 운영업체교체 및 음식 질 높이기’ 등이 주된 내용이었다.

다른 것들은 잘 모르겠지만, 학생 식당은 문제가 많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학교가 외진 곳에 있다보니 주변에 식당이 없어서 학생들은 교내 식당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가격대비 음식 질이 형편없이 낮은데다 조리하시는 분들이 턱없이 부족해서 점심을 굶는 학생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은 적이 있다. 나 역시 학부모 입장에서, 누가 학생회장이 되든 그 부분만은 꼭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다.

아들의 유세하는 모습도 봤으니, 출근을 하려고 버스정류소로 내려가고 있는

데 셔틀버스가 도착하는 것이 보였다. 그런데 한 아주머니가 셔틀버스 앞으로 달려가더니 학생들에게 무언가를 나눠 주는 것이었다. 흔히 학교 앞에서 나눠주는 홍보용 전단지나 할인 쿠폰 같은 것이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마주 걸어오는 여학생들이 주고받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1번 후보 어머니, 진짜 대단하시지 않나? 도서상품권을 전교생에게 다 나눠 주실 생각인지 가방에 한가득 들어있더라. 인자 막판이라 애가 타시는 겁다.”

“이런 거 막 나눠주시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을 낀데…….”

“그 선배, 동아리 모임마다 참석해서 술 사주고, 밥 사주고, 돈 도 엄청 마이 썼다카더라. 우리 과 봉사활동 갔을 때도 거기까지 찾아와가 저녁 사주고 갔다 아이가. 4번 선배도 만만치 않게 작업하고 다닌다카던데……. 1번, 4번, 두 선배가 경쟁하는 거 같제? 과연 누가 당선될지 억수로 궁금해지네.”

“그런다고 되겠나? 어쨌든, 그리 공 들였는데 안 되면 우짜노?”

“선배언니들 말로는 1번 선배가 80%는 가능성 있다카더라.”

여학생들이 주고받는 대화소리를 들으니 온 몸에 힘이 쭉 빠지는 듯했다.

지난여름, 아들 친구가 했던 말이 생각났다.

총학생회장 출마에 뜻을 가진 친구들은 방학 동안 여기 저기 물 밑 작업하러 다니면서 표 굳히기 한다고 정신없는데, 우리 아들만 ‘청렴한 선거’를 할 거라며, 그 들이 그러든 말든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구경만 하고 있어서 답답하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물밑 작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동아리 모임도 찾아다니고, 되도록 많은 학생들을 만나서 밥도 사고 술도 사 주며 총학생회장에 출마할 의사가 있으니 지지해 달라고 부탁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다.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말도 한마디 못 꺼내보고 혼자 고민했을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짠하고 미안해서 그날 저녁, 남편 몰래 아들에게 돈 백 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주었다. 우선 이 돈으로 다른 친구들처럼 물밑 작업을 하고 있으면 형편 되는 대로 조금 더 마련하여 주겠다고 했더니, 아들이 펄쩍 뛰는 것이었다.

“어머니! 돈을 써 가면서까지 총 학생회장이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해서 회장이 된다면, 그건, 내가 아니라 돈 이 회장이 되는 겁니다.

술 먹고, 밥 얻어먹어야 표를 찍어주겠다면, 저는 그런 표, 단 한 표도 필요 없습니다. 엄마는, 아들이 그렇게 하려고 해도 그러면 안 된다고 말리셔야지.”

봉투를 내밀던 손이 부끄럽고 무안해져서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래도 저를 위해서 그러는 엄마 마음을 몰라주는 것이 서운하긴 했지만, 아들 말이 옳기는 했다. 하지만 세상이 그렇지 못하니 그게 문제 아닌가! 노파심에 내 목소리도 높아졌다.

“그렇다고 돈 한 푼 안들이고 어떻게 선거를 할 거고? 물밑 작업인가 그거 말고도, 단체복도 사야하고 현수막이니 포스터니 돈 많이 든다카던데.”

“단체복은 작년에 선배님들 입었던 거 물려 입기로 했고 포스터도 직접 만들면 되고, 학교 창고에 찾아보니까 작년에 선배님들이 사용했던 것들 중에 재활용할 수 있는 게 많아서 그런 거 쓰면 됩니다. 꼭 필요한 비용들은 회원들 모두 N 분의 1로 나눠서 부담하기로 했고, 최대한 아껴서 최소의 비용으로 깨끗한 선거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니까 어머니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너희들 뜻은 알겠는데, 세상이 그렇다 아이가? 얻어먹고 싫다는 사람 없다. 니그 학교 학생들이라고 별 수 있겠나? 남들이 하는 거, 흉내 내는 시늉이라도 해봐야 후회가 없을 거 아이가?”

“남들이 그런다고 우리까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들만이라도 정직하게 해야 후배들도 본받을 거 아닙니까.”

그때 나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세상물정 모르는 아들이, 너희들처럼 해서 과연 몇 표나 나오겠니?’

하지만, 아들의 뜻이 워낙 강경하다보니 그대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속상한 마음에 남편에게 전화해서 다른 후보들처럼 우리도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걸 그랬다고 했더니 오히려 남편이 화를 내는 것이었다.

“대학 총 학생회장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 선거인데, 청렴을 가르쳐야 할 부모들이 우리나라를 책임져야 할 젊은이들에게 부정, 부패부터 가르친다면 미래가 어떻게 되겠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제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빼뚫어지는 법이요. 그 자리는 수 천 명의 학생들을 대표할 중요한 사람을 선출하는 자리지, 엄마 치마폭에 뒹박혀 학급을 좌지우지하는 초등학교 1,2학년 반장을 뽑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요.”

구구절절 옳은 말이지는 했지만, 그 상황에서 그렇게 말하는 남편이 너무나 야속했었다.

그날 이후, 총선이 끝나는 날까지, 도통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다.

크게 도움을 준 것도 없고 해준 것이 없으니, 마음은 접었지만 득표율이라도 조금 많이 나와서 아들이 자신감만이라도 잃지 않았으면 하는 심정이었다.

투표 당일! 오후 여덟시 경이 되면 당선자가 확정될 것이라고 들었는데, 열시가 다 되어가도 아들에게선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혼자서 낙담하고 있지나 않을까 하고 생각하니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해졌다.

아들이 들어오면, 무슨 말로 위로를 해주어야 할지 걱정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기다리던 아들 변호인데도 선뜻 받기가 망설여져서, 여러 번 벨이 울리고 나서야 조심스럽게 수화기를 들었다.

“어머니, 저 해냈어요! 과반수이상 높은 득표율로 어머니 아들이 당선되었습니다. 이게 다 부모님께서 올바르게 가르쳐 주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이냐? 확정됐나? 우리아들 장하다.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다 있노?”

“어머니가 걱정 하셨던 것처럼 우리 학우들, 밥 한 끼, 술 한 잔에 흔들리는 형편없는 친구들이 아니었습니다.”

잠시라도 학생들을 부정부패에 익숙한 속물로 취급했던 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졌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활발하게 선거운동을 했던, 가장 유력하다던 후보가 득표율이 가장 낮았다는 것이었다. 생각지 못했던 이외의 결과라서 그런지 정말 기뻐다. 아들이 당선되어서 기쁘기도 하였지만, 젊은 학생들도 ‘청렴함’을 원하고 있었고, ‘청렴함’을 알아봐주었다는 점이 더없이 감사했다.

며칠 후, 낯선 남자가 집으로 찾아왔다.

누구시냐고 물었더니, 학생식당 운영자인데 아드님이 총 학생회장에 당선된 것을 축하하러왔다면서 봉투를 한 장 내미는 것이었다. 어떻게 우리 집을 알고 찾아왔는지 황당하기도 하였지만, 그 분이 내미는 봉투가 더 황당했다.

봉투를 정중히 사양했더니, 그는 ‘선거운동 한다고 돈이 많이 들었을 거 아니냐.’라며 관례적인 일이고 아무 뜻 없이 축하금으로 주는 것이니 부담 없이 받아달라고 하였다. 또, 정신없이 바빠 질 텐데 ‘승용차’ 한 대 구입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하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봉투 안에는 상당한 액수의 돈이 들어있듯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몹시 불쾌해졌다.

‘당신 같은 어른들이 앞날 창창한 젊은이들을 병들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라고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고 싶었지만 그냥 돌려보냈다. 만약, 우리 아들도 선거운동 하면서 일부 후보들처럼 많은 돈을 썼더라면, 어쩌면 나도, 그 분이 내미는 봉투를 받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부정부패하지 않고도 정직과 청렴함만으로도 너무나 훌륭하게 잘 해내는 것을 지켜보았으니 그런 돈은 전혀 필요치가 않았다.

아들이 가장 먼저 시도한 일은 학생식당 업체교체였다. 취임 전이기는 하지만, 겨울방학 기간 동안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신학기에 지장이 없다며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을 보니 참으로 대견하고 뿌듯했다.

아들의 선거전을 치루면서 어른으로서 부끄러운 점도 많았지만, 젊은이들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우고 반성했다. 많은 젊은이들이, 당장 자신들에게 득이 되는 부정부패 보다는, 조금은 손해 보는 것 같아도 정직과 청렴함을 원하고 있다는 것, 또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건강한 생각을 가진 젊은이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 너무나 감사했다. 하여, 이들이 이끄는 우리나라의 미래는 더욱 더 밝아 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본다.